

고속철도 구간 UIC 406 기반 선로 용량 평가

박범환[†], 김경민^{*}, 오석문^{**}

초 록 한국 철도는 오랜 기간 동안 야마기시 방식으로 대표되는 수식에 의해 산출되는 선로 용량 계산 방법을 적용해 왔다. 이러한 수식에 기초한 선로 용량 계산 방법은 선로이용률의 모호성, 열차종 혹은 정차패턴의 혼합 정도에 따라 변하는 열차간 최소 시격 계산의 부정확성, 하루 단위 기준 선로용량 계산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스케줄을 최대한 압축했을 때의 열차 설정 시간의 비율로 선로 용량을 관리하는 UIC 406 방식의 선로 용량 평가 방법을 우리나라 고속철도 구간에 적용해보고자 한다.

후기. 2024년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음.

† 교신저자: 한국교통대학교 철도경영·물류학과(bhpark@ut.ac.kr)

* : 명지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kmkim@mju.ac.kr)

**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교통물류체계연구실(smoh@krrri.re.kr)